

최연의 산 이야기 <30> 가야산(경남) 4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장경각.

고려인 호국의지가 팔만대장경으로 꽃피웠구나

해인사를 가장 해인사답게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즉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 봉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도사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자장율사가 부처님 사리를 가져와 황룡사 탑과 태화사 탑과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불보종찰(佛寶宗刹)이고 해인사는 부처님 가르침의 총화인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어 법보종찰(法寶宗刹)이라 하고 송광사는 고려시대 이래 16본의 국사(國師)를 배출하였으니 승보종찰(僧寶宗刹)이라 할 것이다.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봉안되기까지의 역사적인 과정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고려시대의 대장경 조판사업에 대하여 일瞥(一瞥)해 보고자 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결집(結集)을 통해 경(經)과 율(律)로 정리되고 경과 율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논(論)으로 정리되어 비로소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三藏) 갖추어 지게 된다.

이 삼장의 내용이 곧 경전(經典)으로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산스크리트어인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 소개하였는데 초기에는 필사(筆寫)로 널리 유통하게 되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 널리 유통되는데 한계가 있었고 필사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형과 훼손(變折)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 율, 논을 체계적으로 정리 집성하여 나무판에 새긴 목판대장경이 출현하게 된다. 최초의 목판대장경은 972년에 시작하여 983년에 완성한 북송(北宋)의 관판대장경(官版大藏經)이다.

이것은 한역된 불전(佛典)들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개원석교록(開元釋教錄)>에 수록된 내용들을 새겨 만든 것으로 5048권의 경전이 13판 매의 경판에 새겨져 있다.

북송을 이어 가장 먼저 대장경 조조(雕造)를 추진한 나라는 고려이다.

고려 현종2년(1011년)에 시작하여 선종4년(1087년)까지 6대 76년에 걸친 작업으로 완성을 했는데 이를 고려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북송의 관판대장경의 내용과 체제를 따랐지만 거란이 만든 거란대장경에 실린 불전들이 다수 실려 있어 전체적인 분량은 관판대장경보다 876권이 많은 5924권이나 된다.

문종의 넷째 아들이면서 출가하여 승려가 된 대각국사의 의천(義天)은 송나라에서 3천여 권의 문헌을 수집하고 요(遼), 일본(日本) 등에서도 서적을 구입하고 국내의 고서들도 아울러 수집하여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 3권을 간행하여 속장경(續藏經)에 수록할 서적을 결정한 후 흥왕사(興王寺)에 교장도감(敎藏都監)을 설치하고 속장경 조조작업을 하였는데 1092년에 시작하여 1100년에 마무리 하여 9년에 걸쳐 4740여 권의 문헌을 실었다.

그 내용 중에는 신라 승려들의 저술도 355권이나 포함되어 있다.

초조대장경은 팔공산 부인사에 봉안되어 오다가 소실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몽고의 2차침입 때 방화로 불타 없어졌다고 하나 몽고병은 처인성 전투에서 사령관 살리타이가 승장(僧將) 김윤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뒤 바로 회군하여서 소백산을 넘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난 재부(재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가람 부인사를 도탄에 신음하던 백성들이 약탈하며 소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오늘날 일부 판본이 국내에 흩어져 있고 일본 남선사(南禪寺)에도 약간의 판본이 남아 있을 뿐이다.

속장경도 어디에 보관하고 어떻게 소실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그 경판의 일부가 송광사

에서 발견되었고 일본 나라의 동대사(東大寺) 도서관에 얼마간의 판본이 보관되어 있다.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대몽항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대장경을 만드는 일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도는 최씨 무인정권 시절 권력을 장악한 최우(崔瑀)가 강압적으로 강화도로 천도(遷都)하고 곧바로 대장경 조판에 착수하는데 이는 지배계층의 결속과 대립적인 정치세력을 통제하고 정권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가적 위기를 불교적 신앙사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이었다.

강화에 대장도감(大藏都監)을 설치하고 지방에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을 두어 판각작업을 하였는데 1237년부터 12년여 걸린 1248년에 완성이 되었고 3년 뒤 1251년 낙성경전회가 열려 비로소 세상에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지금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또는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으로도 불리는 고려대장도감판 대장경(高麗大藏都監板大藏經)이다.

완성된 팔만대장경이 어떤 경로로 해인사에 옮겨졌는지는 확실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고려사(高麗史)에 “팔만대장경은 완성된 뒤 강화성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안치되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한동안 강화도에 있었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태조가 “강화 선원사로부터 옮겨온 대장경을 보기 위해 용산강에 행차하였다.”고 적고 있어 1398년 이전 한동안은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또한 정종 원년(1399년) 정월 9일에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출(印出)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분명한 것은 강화도를 떠난 대장경은 1398년 5월 한양을 경유하여 1399년 정월 이전에 해인사에 옮겨졌다고 할 수 있겠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검은 밤 붉은 길을 달리며

에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밤. 비가 내린 뒤의 축축한 포장도로를 따라 차를 몰아 산중턱의 집을 향해 구불뚝 구불뚝 길을 오르는데 토끼 한 마리, 길가운데 우뚝 서서 긴 귀를 바짝 세운 채 어리둥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늦춘다. 그대로 돌진해서 토끼를 어찌할 마음은 없고 도로를 쪽이 좁으니 토끼가 비키지 않으면 차를 세울 밖에.

차가 멈추기 직전, 제 정신을 차렸는지 아니면 위험한 무엇이 바짝 다가서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반사신경이 작동했는지, 토끼가 화들짝 뛰어오르며 앞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슬쩍 가속페달을 밟았다. 나도 모르는 사양꾼의 무의식이 작동되며 토끼를 뒤쫓는 게 재밌다.

길 옆의 풀숲으로 파고들어 몸을 숨기면 되련만 토끼는 길을 따라 앞으로 치달린다.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든 도로를 토끼의 길로 생각하지 않았겠지. 왼쪽 길가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 길가로 붙으면서도 토끼는 계속 달린다. 열심히만 달린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험한 행동이다.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자신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 주겠다는 듯. “그러다 치겠어.”

옆에 앉은 아내가 차 속도가 빠르다며 주의를 준다. 그런가? 재미 삼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피를 보고 싶지도 않았다.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 재, 집 못 찾아 가는 거 아니냐?”

아내의 의문도 엉뚱한 말은 아니다. 토끼가 집을 찾아가지 못할 지도 모를 일이다. 살려고 황급히 뛰는 중에 집이 어딘가를 잊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장난이 토끼에게 죽음이 될 수도 있다. 삶이란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밖에 없다. 그렇기는 해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속도를 늦추는 때를 맞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듯 토끼가 길가로 멈춘다. 차를 세웠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착실한 듯 토끼가 풀숲으로 들어간다. 빛

을 뚫으며 쫓아오는 물체가 자신보다 빠르고 지치지도 않는 괴물이란 걸 비로소 깨달은 모양이다.

“그놈 들어갈 거면 일찍 좀 들어가자. 하긴 그러면 내가 재미가 없었겠지. 나를 재밌게 해주려고 그랬나?”

가속페달을 다시 밟으며 집으로 차를 몰았다. 뭐가 또 나타나려나, 앞을 살핀다. 그러나 나 너구리가 나타나려나 또 한 판 놀 수도 있으나 뱀이나 개구리만은 만나지 않았으면 싶다. 언뜻 눈에 띄는 순간 차는 그를 위로 지나가게 된다. 작거나 납작 기어가는 것들의 운명은 차바퀴 밑에서 끝나기 일쑤다. (산길에서 차에 치어 죽은 동물들은 하루 이를 이내로 무엇인가의 먹이가 되어 모습이 지워진다.) 자꾸만 무디어져가고는 있지만 차바퀴에 눌러 죽는 것들의 마지막 외침이 바퀴에서 전해지는 순간이 있다. 그때마다 예리한 광선이 몸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 찰나의 일이지만 마음이 섬뜩하다.

내 몸 위를 차바퀴가 지나간다면, 몸이 으깨진다면, 억 소리 한 마디가 이승을 하직하는 마지막 인사가 된다면! 무엇인가 바퀴에 깔리는 느낌을 받을 때, 나는 동시에 내가 깔리는 충격 속에 빠진다. 머리로 상상하기 전에 가슴부터 딱 막힌다. 재빠르게 머릴 흔들며 벗어나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즉시 되진 않는다.

그러니 길가 풀숲에서 갑자기 차 앞을 향해 뛰어드는 고라니나 너구리나 고양이나 토끼 등을 만나게 될 때, 내 스스로 놀라게 된 그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다. 들어받거나 바퀴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채 사람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나를 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다.

■ 유승도 (시인)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종무법인 禪農敎團
(법인등기 제 000006호)

우리불교조계종 입증안내

선농교단 총재 弘山 현불

「 建法幢立宗旨
明明佛勅曹溪是
第一迦葉首傳燈
二十八代西天紀
今朝禪農立家風 」

-永嘉玄覺證道歌中引用-

法の じば ぬゑ い 道理 세움이며
스승의 밝고 밝은 가르침이라
제일조 가섭의 등불 始發로 하여
스물 여덟 등불이 서천의 불 밝혀
우리 불교 선농의 가풍을 세움이라

- ◆ 입 증 비 : 없음
- ◆ 입증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 사진 4매,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법당 안 밖 사진 1매

※각 사찰 인감등록 및 발급 (차량구입 및 부동산 취득시)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 총무원 수월사

- 주 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지리 611번지
- 사 무 국 : (070)8843-7620 / FAX 041)943-7620
- 총재직통 : 016-850-1208

사주명리학 강의 실전특강

사주 명리학에 처음 접하거나, 입문 후 열심히 하셨으나, 공부에 큰 진전이 없어 고민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좋은 공부와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 과 목 : · 명리학, 기문둔갑, 육효, 육임, 관상 · 타로카드반은 수강신청에 따라 별도운영
- 강 사 : · 전, 호서대 기문, 관상학 주임교수 · 전, 동아 · 불교문화센터 명리학, 기문학 강사 · 전, 사단법인 동양사상연구회 부회장 직강!
- 일 시 :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 소 : 서울 관악구 난곡입구 사거리 씨체널 안경점 옆 홍삼대리점 안골목 정운철학원
- 전 화 : 010-7154-8835 / 011-241-9681

정운철학원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추석, 기일, 영가 천도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 행자 (에비스님) 모집
 - 21세기형 행자교육!
 -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마